

생산양식과 농촌사회의 변화

임형백 · 조중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Mode of Production and Change of Rural Society

Lim, Hyung-Baek · Cho, Joong-Koo*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 of production and change of rural society. While dominant theories of social change have stressed variation of contingencies and periodical contexts, this theoretical paper drives a new insight paralleling diverse theoretical arguments of each mode of production with rural and urban changes. Investigating the drifts of intellectual ideologies of the mode of production, we get through diverse paradigm shifts of the production accumulation and its trigger effects on rural change. Mor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change of rural society by way of investigating such fluctuations of societal changes as ancient society, slavery society, feudal society, industrial society, post-industrial society, and information society. We find tha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had a key role in the changes, however, the effects of the technologies on social changes have been different between rural- and urban-society. While we take it for granted that flexible accumul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y and time-space compression and informatization in information society will reduce development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society, we also found that there have been big differences of actual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between theory and reality in each era of mode of production.

Key words : Mode of production, Rural society,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Urban society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양식¹⁾의 변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다. 생산양식은 Marx에 의해 개념화되었는데,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생산력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생산관계는 생산에서의 인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이처럼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결부되어 있는 두 개의 측면이며 그 통일로서의 전체를 생산양식이라 한다. Marx는 생산력의 발전에 비하여 생산관계는 뒤떨어지는 경향을 가지므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면 결국 낡은 생산관계는 파괴되고, 발전한 생산력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되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새로운 결합이 달성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생산양식은 역사적으로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제의 순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1760년대부터 1850년대에 걸쳐 일어난 제2차 엔클로저(enclosure) 운동은 인구의 증가,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의 팽창, 농업노동자의 상대적 감소, 식량공급의 부족,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의 폭등이라는 정세하에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일어났다. 영주들과 국가는 농지에 대한 농민의 공동이용권을 배제하고,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화하였다. 또 전업적 수공업

Corresponding author : Lim, Hyung-Baek

Tel : 02-880-4749

E-mail : emperor10131@hotmail.com

1) 생산양식과 지배양식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나, 생산양식은 물질적인 존재조건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행동들이 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고, 지배양식은 그러한 조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평등한 계급관계가 정당화되는 양식을 의미한다.

자는 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대와 해외시장의 확대에 자극받아 상인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산업자본을 축적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켰다. 마르크스주의의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은 출발배경부터 이러한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구도에서 출발하였다(임형백과 이성우, 2003a : 24).

20세기 초의 마르크스주의자 V. I. Lenin(1870~1924), R. Luxemburg(1871~1919), N. I. Bukharin(1888~1938), L. Trotsky(1879~1940), B. Bauer(1809~1882) 등도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의 시각에서, 농촌사회와 도시, 집적되는 중심부와 분산되는 주변부 간의 통합적이고 공시적인 적대관계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Soja, 1997 : 46-47).

Marx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출현을 농촌사회와 도시가 분리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Marx, 1981 : 43),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제 공업체계의로의 이행을 통해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는데(Marx, 1983 : 442~451), 이는 결국 Marx는 도시를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의 터전으로 인식한 반면, 농촌사회는 산업화의 배후기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rx의 생산양식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류임이 입증되었다. 또 Marx의 연구는 산업사회에서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Marx와 그의 계승자들은 한결같이 농촌사회를 도시와 대립되는 지역이면서 도시에 의하여 수탈되는 지역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렇다할 연구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임형백과 이성우, 2003a : 25).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 농촌사회와 도시는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된 속에서 공존을 추구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이를 대립적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21세기를 대표하는 화두 중의 하나가 정보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화 수준의 향상은 지역산업의 생산성증대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인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류승호, 1996, 임창호, 1998). 한편 정보화수준의 지역간 격차는 1960년대 이후 시행되었던 불균형개발로 인한 국토의 불균등성을 심화시켜, 더욱 극심한 지역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김주찬과 민병익, 2003). 더구나 이성우 등(2004)의 연구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개인 및 지역별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정보화의 진전은 이들 간의 관계를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양식을 고대사회, 노예사

회, 봉건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나누고, 각 생산양식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의 낙관론과는 달리 정보사회가 시간과 공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도시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사회의 공존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농촌사회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II. 생산양식의 개념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은 Marx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Marx에 의하면 사회의 물질적·경제적 기초구조는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과 생산관계(relations of production)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되며, 인간생활의 기초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다. 인간은 자연에 작용해서 노동에 의해 자연력을 이용하고 노동수단을 만들어 내며 노동대상인 자연물을 자신의 목적에 알맞은 것으로 개조한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본질이며, 이와 같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 생산력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고립해서 자연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상호 관계를 맺고 생산을 행한다. 이러한 생산에서의 인간의 상호관계가 생산관계이다.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작용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만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결부되어 있는 두 개의 측면이며 그 통일로서의 전체를 생산양식이라 한다. 그러나 생산양식은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로부터 독립된 객관적·물질적 관계이며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수준에 의존한다. 생산양식의 두 개의 측면 중 생산관계의 변화는 생산력의 발전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주도적 측면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 생산관계는 뒤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생산력과의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면 결국 낡은 생산관계는 파괴되고 발전한 생산력에 조응하는 생산관계가 형성되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새로운 결합이 달성된다. 이렇게 해서 생산양식은 역사적으로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제의 순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생산양식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3개(고대, 봉건,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부족, 노예, 고대 아시아, 기타 고대 생산양식 등에 대하여는 Marx에 의해 언급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실존했는가, 이론적인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대표적인 생산양식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생산양식의 예

학자	생산양식
K. Marx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제
H. Alavi	봉건주의, 자본주의, 식민지, 후기식민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 Althusser에게도 생산양식들 간의 관계는 중심적인 초점이었고(Kahn와 Smith, 1981), 세계체계론²⁾자들(Frank, Dos Santos, Wallerstein³⁾, Emmanuel, Amin)에게도 중심개념이다. 그러나 Poulantzas (1978)는 Marx와는 달리 Althusser의 인식론에 입각하여 생산양식을 경제적인 생산관계로만 규정하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부문구조 및 실천들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생산양식에 대한 규정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 부문으로 정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Marx와 달리 국가를 단순한 계급지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였다.

III. 생산양식과 농촌사회의 변화

1. 고대제와 농촌사회

고대의 농촌사회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도시를 살펴보면 도시의 성장 기반이 토지의 경계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사회의 도시들이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배후지로 하였거나 타처로부터 농산물의 반입이 유리한 곳에 입지하여 성장한 것이다(김인, 2003 : 45). 따라서 농촌사회가 도시성장의 모태 혹은 배후지로서 역할하였음은 분명하다.

인류역사상 도시는 두 번의 혁명적 변혁의 도약시기를 거쳐서 발달하였다. 첫 번째는 신석기 농경문화의 정착이 가져온 농업혁명(green revolution)이고 두 번째는 18세기 전후 근대적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이 수반한 도시발발이다. 인류가 정주생활을 시작한 것은 B.C. 14,000경이고, 많은 도시들이 B.C. 3,500~3,000경의 신석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고대 도시는 농업혁명 이후 최후의 빙하기가 끝난 B.C.

7,000년경⁴⁾에 주로 출현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도시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만든 인공구조물이다. 따라서 도시는 인간의 정주성(定住性)을 증명하는 것이고, 도시의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사회조직의 출현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작계는 부족단위 일수도 있고 크게는 국가단위 일수도 있다.

결국 농업혁명 이후 농경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정주생활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사회는 식량공급지로서 역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석기농촌사회(neolithic rural areas)가 도시의 모태가 되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농경이 유리한 지역에 농촌사회가 형성되고 이러한 농촌사회가 도시와 국가로 발전하였다. 생태학적 견지에서 농경기술과 지리적 농업환경의 결합이 도시문명의 기원이라는 주장(Childe, 1950), Childe의 도시기원설에 입각한 도시기원다원설(Wheatley, 1971), 도시기원양설이 이러한 입장이다. 도시기원양설⁵⁾은 농경문화의 정착과 이에 따른 식량생산의 증가를 도시형성의 원인으로 본다. 즉 식량의 증산과 잉여분이 농사짓는 일 이외의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출현시켰고,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 속에서 생산에서 벗어나 특권을 부여받은 계층이 지배계층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사회가 도시와 나아가 국가형성의 모태였다는 것은 4대문명을 통하여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Mesopotamia 문명은 티그리스강(the Tigris)과 유프라테스강(the Euphrates)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이 토양이 비옥하고 관개(irrigation)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며, 5,000여년간 Sumer, Amurru, Hittite, Kassite, Assyria, Persia, 몽고 등 수많은 종족이 번갈아 차지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 남쪽 삼각주 지역의 에리둡에서는 물고기 말린 건어물 생산을, 그 위쪽 지역에서는 목양을, 서쪽의 우루크를 중심으로 목우를, 중앙 지역의 평원에서는 농사를 장려하여 육류와 곡식 산출이 컸다. 이에 따른 잉여생산품의 축적은 먼 곳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잉여농산물 교역의 필요에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많은 수로와 운하를 건설하였고, 문자도 발명되었고, 농사요법, 농경지 지적도가 남아있다. 이를 통하여 B.C. 4,000~3,500에 태동된 메소포타미아

2) Laclau(1979)는 세계체계론이 자본주의, 봉건주의, 생산양식, 착취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다루는 데 개념적으로 혼동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3) Wallerstein은 최근에는 19세기 서구에서 제도화한 사회과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과학을 고안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의 사회과학이 19세기 당시 유럽 세계체제의 정당화에 동원된 시대적 산물일 뿐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4) 김인(2003 : 39)은 이 시기를 B.C. 6,000년경으로 보았다.

5) 한편 Harvey(1973)는 잉여의 개념을 노동과 재분배과정의 사회적 수탈의 개념어로 해석했다. 즉 수탈에 의한 잉여가치의 영구적 집중이 곧 도시이며, 도시적 기능·제도·형태를 잉여라는 수탈과정의 필연적 산물로 보았다. 이는 농업생산의 잉여 자체보다는 잉여에 의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도시형성에 대한 잉여설의 정형화를 이념적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다.

의 선사문화는 문자를 통하여 도성문화로 발전하였고, 여러 도시는 자기 지역에 적합한 특산물을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서로 교역하는 분업 경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3세기 중엽에 몽고의 지배를 받은 뒤부터 황폐화하여 사막으로 바뀌었다.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아프리카 북부는 원래는 숲이 우거진 곳이었으나, 12,000~10,000년 전쯤인 구석기시대 말기부터 기상변화가 계속되어 점차 사막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나일강 유역에 모여 살게 되었으나 해마다 강물이 범람하였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범람으로 비옥해진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범람에 대처하는 토목과 관개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밀과 보리의 경작을 위한 관개시설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왕 밑에는 귀족·평민·노예의 3계급이 존재하였고 주산업은 농업이었다. 왕조 이전 시대와 초기 왕조시대의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 경작지는 고위 관리들에게 할당되어 있었고, 그 경작지에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작지를 마음대로 떠날 자유도 없이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했지만 노예는 아니었다. 노예는 포로와 외국인 또는 가난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농촌사회가 산재하였고 도시는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농촌사회를 모태로 나일강의 범람을 통제할 필요성에서 국가가 발생하고 국가권력이 석조인공시설을 건조하여 도시(를) 형성하였다.

B.C. 2,500년 발생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인도북서부 평야에 삼각주를 형성하고 아라비아만으로 유입되는 인더스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Mohenjo-Daro와 Harappa이다. 이곳은 강우량은 적지만 기후가 따뜻하고 때때로 홍수의 범람이 가져다 준 충분한 침적토가 자연적인 비료의 역할을 하였다. 인더스 문명은 이러한 농촌사회를 모태로 하여 도시로 성장하였고, 인더스 문명권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로를 바둑판 모양(대개 100×200미터)으로 배열한 정연한 도시였다. 특히 Mohenjo-Daro에서는 폭 10m 이상이나 되는 넓은 도로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군사적 혹은 종교적 행진을 위해 건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포장도로, 주택가, 공중목욕탕, 시장, 창고 등 도시계획하에서 건설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더스 문명 역시 농촌사회를 모태로 출발하여 도시를

지나 국가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황하문명 중 은(殷)나라를 살펴보면 도읍인 상(商)에서는 수렵과 목축이 성했고, 밀·보리·조·쌀 등을 재배했으며, 운하(運河)와 가축을 이용한 목조(木造)문명이었다. 또 황하강 중류에 위치한 소위 '왕도(王都)의 계곡'에 씨족국가들이 세운 토성으로 둘러싸인 다수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있었다. 이 역시 농촌사회를 모태로 출발한 도시가 국가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대에 농촌사회는 식량공급지로서 도시성장의 배후지로서 역할하였고, 농촌사회를 모태로 도시가 생성된 이후에 이러한 역할이 더 강화되었다.

2. 노예제와 농촌사회

인류역사에서 노예의 출현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조선, 이집트, 로마 등 고대국가의 기록에서 노예의 존재는 명확히 드러난다. 전쟁, 신분세속, 형벌 등 다양한 이유에서 노예가 출현하였지만, 공통점은 주로 생산을 위한 노동력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특히 로마시대에 노예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로마는 계속되는 정복전쟁과 정복지에서의 노동력의 필요성에서 노예를 증가시켜왔다. 노예라는 단어 slave도 로마인들이 다수의 slav족을 노예로 이용하면서 연유했다.

로마는 도시국가였다. 노예제 생산양식 아래에서 노동자는 노예의 주인이 다른 생산수단들과 마찬가지로 팔고 사고 소유하는 생산수단이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외곽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노예를 통하여 이를 경작하였다. 대토지소유자의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어졌지만 생산양식은 지방의 농지에 근거하고 있었다. 농업적 토지소유권이 통치계급의 부를 보장해주는 노예제 생산양식에 기초한 것이다. 전체사회의 생산양식은 생산 도구로서의 노예에 의존하는 지방의 농지에 근거하고 있었고, 생산수단으로서의 소유권은 독립적 자작농의 연속적인 붕괴 결과, 점차 latifundium으로 집적되었다. 따라서 로마시대까지는 아직 새로운 생산양식은 출현하지 않았다. 로마와 속주간의 관계도 완전히 정치적·행정적인 것이었으며, 도시는 단지 노예제 농업생산양식을 감독하는 정치적·행정적 중심지였을 뿐이다.

Durkheim(1933: 19)도 로마를 본질적으로 농업 및 군사력에 기반한 사회로 보았다. 그러므로 내부의 투쟁이 이러한 정치적 연결고리를 파괴시킬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노예제 사회의 몰락을 가져올 만한 새로운 생산양식은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Lefebvre(1972: 40)는 도시와 농촌사회,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대립관계가 단지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멸망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즉 이 때까지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6) B.C. 1360년경 이집트의 테베(Thebes)는 인구 100,000명의 세계 최대도시였으며 인구 20,000이상의 도시도 약 20개 정도가 존재했다(김인, 2003 : 43).

출현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고대도시라는 것이 폐쇄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Marx도 고대 로마에서 농촌사회는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만 연결되어 예측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Marx(1976)와 Engels(1969)는 역사상 고대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사회를 특징짓는 도시와 농촌사회간의 분리를 분업화의 표현이자 그 시초로 보았고, Marx(1964 : 77)는 로마를 최초의 실질적 계급사회로 보았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사회간의 분리는 분업화의 표현이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그러한 분화의 원인과 동력이 되는 생산양식에 관한 분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보았고, 생산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차츰 도시와 농촌사회는 동일한 것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았다. Weber(1958 : 66~67)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는 농업보다는 교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주공간이며 동시에 하나의 시장으로 보았다.

결국 노예제에서 도시는 귀족들이 거주하는 정치·문화의 중심이며, 농촌사회는 다수의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농촌사회는 정치적으로 도시에 예측되어 도시의 존속을 위한 식량의 공급지로서 역할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사회의 관계가 도시에 거주하는 귀족과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노예 혹은 로마와 속주와의 관계라는 등식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임형백과 이성우, 2003a). 특히 로마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없었다. 단지 노예의 수적증가를 통하여 로마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중해식 농업과 속주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 주를 이루었다. 결국 노예제에서 농촌사회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식량공급지와 도시의 배후지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생산양식도 등장하지 않았고 도시와의 연계는 정치적·행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A.D476년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시대의 생산과 소비체계가 종식되었다. 이 시기에 인구 가운데 비농업집단이 중간상의 매개없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직접적 농업소비체계라는 새로운 체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Bath, 1999 : 20). 이러한 직접적 농업소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하면서, 동시에 현물 형태로 비농업 분야의 인구에 식량을 공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때부터 1150년경까지 지속되었다. 농촌사회에서 자급농업이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많은 환금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술수용을 통하여 생산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뒤이어 농업의 산업화와 임금노동으로의 이행이 나타났다. 농촌사회와 도시가 경제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으며,

비농업적인 인구의 성장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촌사회는 도시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도시의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3. 봉건제와 농촌사회

로마의 멸망에 수반된 Latifundium의 붕괴와 노예제 생산양식의 소멸은 소농민 경영을 가져왔다(Marx, 1964 : 77-78). 그리고 붕괴된 로마의 영토안에 정착한 게르만족은 초기에는 부족단위로 나뉘어져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식량이 부족할 경우 이웃부족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정착생활이 지속되면서 봉건적 신분제가 발생하였는데, 봉건사회의 바탕은 영주가 농노를 직접 지배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농노계급은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토지와 생산물의 일부는 봉건영주의 재산이었으며, 농노는 법적으로 토지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주와 영주와의 관계는 독립적인 동시에 경쟁관계였다. 따라서 영주들은 농노와 토지를 둘러싸고 잦은 대립과 충돌을 가져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봉건제를 바탕으로 이룩된 조직이 봉건국가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가를 통치하고 보호할만한 상비군이나 세련된 관료정치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모든 영주들은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었으며, 왕은 다만 영주들간의 싸움을 막고 봉건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가 형성되고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왕이 거주하는 궁성 내에 전문지식인이 모여 살게 되면서 부르주아(bourgeois)라는 계층이 생겨났다.

1050년경까지 서유럽의 농민들은 대부분 호미도 갖고 있지 못하였고, 철제 농기구는 물론 목제 농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1050년부터 1250년 사이에 심경쟁기(heavy plow)와 삼포제(3 field systems)의 도입은 서유럽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작중심이 로마로부터 북서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문명의 중심도 지중해로부터 북대서양지역으로 옮겨갔다. 로마인들의 천경쟁기(scratched plow)는 지중해 연안의 부드러운 토양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큰 불편이 없었지만 습한기후의 북유럽의 충적토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고, 따라서 심경쟁기가 도입되었다. 또 삼포제의 도입은 휴경지 자체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였다. 여기에는 귀리, 보리, 콩 같은 새로운 춘곡농작물이 도

7) 대체로 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존속된 서구중세의 독특한 농경 방식으로 춘곡의 모든 농지를 춘곡, 추곡, 휴간의 세 종류로 나누어 돌려짓기를 하였다. 중세가 10세기경에 시작되어 16세기에 끝났으므로 중세시대의 대표적 농경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입되면서, 종전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집중되던 노동력을 연중 고르게 분산시켜 주었고, 농업생산량도 2분의 1 내지 3분의 1 가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1850년 이전에는 농업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처럼 농업생산에 크게 의존해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 즉 성직자, 정치가, 무사, 학자 및 예술가들이 아직 농촌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도시의 규모는 작았으며, 도시의 성곽 너머에는 경작지, 방목지, 숲 그리고 미경작 상태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다(Bath, 1999). 따라서 봉건제가 성립된 이후에도 도시가 농촌사회의 토지에 기반을 둔 농업중심의 사회였으며 이러한 농업중심의 역사는 이때까지 계속되었고, 아직 새로운 생산양식은 등장하지 않았다. 봉건귀족들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사회가 정치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었고 여전히 농촌사회는 도시의 식량공급지와 배후지로서 역할하였다. 그러나 비농업적 도시인구의 등장이 농업의 상업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사회를 경제적으로도 연결시켰고, 농촌사회가 도시의 모태 혹은 배후지로 역할하던 단계를 지나서 농촌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중세의 도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의 성장기반이 모두 토지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이처럼 중세 말기 상업의 중심지이며 새로운 사회조직(Guild)의 장소로서 도시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Weber, 1958, Marx, 1964).

한편 중세농민의 삶은 힘들었다. 농업은 천재지변 등이 없는 경우에 겨우 농민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보통의 경우 아동까지도 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경영이면서도 수입은 적었다. 또 중세 전반기에 중요한 발명들과 개량이 있은 후, 중세 후반에는 주목할만한 기술적 변화도 없었다. 농업이 충분한 생계수단이 되지 못했던 중세 후기에 농촌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공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광범위한 농촌공업이

성장했다. 게다가 농업인구의 일부는 도시의 공업분야에서 높은 임금에 이끌려 도시로 이동했다(Bath, 1999). 처음에는 이러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산업화에 필요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중세시대 봉건제하에서 기존도시의 상인계급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생산양식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상인계급의 성장은 지역간의 교역을 확대시켰고, 따라서 도시들간의 분업과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였다. 여러 도시들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도구가 보급되었고 생산 및 상업의 분화로 인해 각 산업도시들은 분업적인 생산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들 도시는 제각기 유리한 산업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Marx와 Engels, 1970 : 72). 그러나 이 시대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은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즉 농촌사회의 봉건적 조직과 도시의 길드(Guild) 조직이 고리대금업과 상업에 의해 형성된 상인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길드체제가 공장수공업(manufacture) 고용을 제한하였으며 아울러 노동자들의 이동을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에 방직공업에 기초하였던 자본제적 공장수공업은 조합도시를 떠나 신식기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수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농촌사회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노들에 대한 봉건적 속박이 와해되고 토지점령과 농촌인구의 부분적인 축출이 일반화되면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봉건도시의 상인자본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자본제적 공장수공업 체계는 농촌사회에 정착하였고, 이후 산업혁명의 대도시들이 그 주위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고대의 도시들이 폐쇄된 체계의 특징을 나타낸 반면, 이 시대의 신흥산업도시들은 자신들을 발생시킨 봉건적 생산양식에 대한 대립물로서 나타난다. 종전의 봉건제적인 신분질서와 중세도시의 조합주의적인 통제는 화폐관계에 기초한 관계들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본제적 사회관계는 봉건적 사회관계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성립되었고, 또한 산업자본가와 봉건지주 사이의 계급적 적대관계로 표현되는 이러한 모순은 도시와 농촌사회간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갈등으로 표출되었다(Saunders, 1998 : 25). 즉 도시는 자본과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구축되는 공간으로 농촌사회는 지주와 농노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봉건주의적 생산양식의 공간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사회간의 분리는 공장수공업과 농업 사이의 점진적인 분업의 반영임과 동시에 대립하는 두 생산양식간의 대립이었다.

이처럼 봉건장원경제의 농촌사회와 신흥부르주아 상

표 2. 중세의 도시유형

유형	특징
정기시(定期市) 도시	13세기에 상거래를 크게 촉진시킨 도시형태 농촌사회의 잉여농산물을 교역하기 위한 정기시장이 형성되면서 교역장소가 도시로 성장
성채(城砦) 도시	건고한 성곽을 지닌 원형의 도시형태로 약 16세기까지 성채도시의 형태가 지속 예: 하이델베르크(독일)
상인도시	13세기에 본격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

*자료 : 권용우 등, 2002 : 19-20을 참고하여 작성

인자본의 도시간의 대립, 그리고 전자에 대한 후자의 승리는 자본의 축적 과정과 더불어 농촌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가져오게 되었고(최병두, 2002 : 51), 초기 자본의 축적은 봉건 영주의 토지에 부속되어 있었던 소농을 토지와 분리시키고, 이들을 도시의 임금 노동자나 무토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로 전환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Harvey, 1982 : 359-360).

농촌사회내부에서도 생산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길드(Guild)조직과의 마찰을 피해 농촌사회로 이전한 자본제적 공장수공업은 농노의 신분해방, 토지점령, 농촌인구의 부분적인 축출을 가져왔다. 또 1차 엔클로저(enclosure) 운동이 일어났다. 1차 엔클로저 운동은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운동은 지주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농토를 목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하여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되었다. 1차 엔클로저 운동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동유럽에 대규모 농장을 등장시켰다. 영국에서는 농민층의 분해를 진전시키고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이 확립되었다. 서유럽에서도 농노의 해방으로 인하여 자영농이 성장하고 봉건적 공급이 해방되었다. 미국에서는 흑인노예를 이용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특히 수확과 탈곡에 필요한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은 기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결국 경지면적의 확장을 통한 생산량의 증대와 농업의 자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신대륙으로부터 감자와 옥수수가 전래되어 재배가 확산되었고, 농업기술발달과 자본주의적 농업경영확대로 곡물생산이 증가됨으로서 인구부양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늘어난 농촌인구가 18-19세기의 제2차 엔클로저 운동 이후 이농을 통하여 공업생산의 노동력으로 흡수되었다. 2차 엔클로저 운동은 지주들이 영세농의 토지를 몰수하여 대농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의 농장경영을 하였다. 이로써 농촌은 근대적 공업경영양식의 맹아를 탄생시킴과 동시에 잉여노동력의 공급지로서 역할하였다. 반면 동유럽 특히 러시아에서는 농노제를 통한 부자유노동력이 사용되었고, 결국 사회발전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이때 상인계급에 의하여 주도된 자본제적 공장수공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양식이었다. 이는 토지에 기반을 둔 봉건적 사회구조에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로의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다. 이는 동시에 신분적 계급사회로부터 시민적 직능사회로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여 시민계급을 성장시켰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도시와 농촌사회의 격차를 통한 도시와 농촌사회의 대립과 농촌사회의 도시화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이 모순이 봉건제 자체를

붕괴시켰고, 농촌사회와 도시를 분리시켰다. Weber(1958 : 181)도 중세도시를 봉건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즉 봉건제적 생산양식의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농촌사회에서 점차분리된 도시라는 실재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결국 도시가 봉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것을 와해시킨 것이다. 또 이렇게 성장한 시민계급이 봉건영주(도시정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왕권과 결합함으로써 국가체제를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변형하였다. 즉 배타적 주권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여 통치영역을 구분하고 통치영역내의 모든 지역에 대한 배타적 주권의 균등한 행사를 통하여 봉건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뒤이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은 봉건제 자체를 종식시켰다.

4. 산업사회와 농촌사회

봉건시대를 지나면서 농촌사회와 도시는 분리되었고 농촌의 도시화와 동시에 봉건제는 해체되었다. 봉건시대의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이윤추구에 대하여 정당성이 부여되었고(Weber, 1998), 이 시대에 이르러 고대와 중세에는 발견되지 않던 체계적인 진보의 이념이 나타났다(Foucault, 1986). 이성을 통하여 중세의 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후, 과학적 지식에 대한 절대성이 자리잡았고,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구성론적 미래관이 확립되었다. 그럼으로서 발달은 당연한 개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달에는 기술발달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발달이라는 도덕론이 내포되었다. 임금노동자는 모든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또한 임금을 위해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사회와 도시에 대하여도 이러한 시각이 개입되면서, 개발(발전)과 저개발의 논리가 개입되게 되고, 근대화라는 개념이 자리잡았다. 근대화는 농촌사회의 도시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특히 제3세계에서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서구식 산업사회에 빨리 다달려고 하였다(임형백과 이성우, 2003b). 결국 이러한 사고는 농촌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라는 시각에서 농촌사회가 도시와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산업화를 위하여 희생되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다. Marx와 Engels(1970)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

8)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결정론적 미래관이라 한다.

라 희생되고 도시화에 편입되는 농촌사회라는 인식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고, 특히 Engels(1969:333)는 이러한 모순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극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Marx는 자본제적 관계가 차츰 사회 전체에 확산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사회 분화의 본질적인 기초가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농촌사회에 대하여 Marx(1973:479)는 ‘농촌사회의 도시화’(the urbanization of countries)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세 중·후반 이후 자본주의가 전면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사회의 구분은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의미는 농촌사회와 도시의 개념적·지리적 구분이 없어졌다고 보다는, 자본주의가 전면화되면서 Marx와 Engels가 사회의 기본모순으로 주장한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농촌사회와 도시를 넘어 사회전면에 부각된 것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마르크스주의에 있어 농촌사회와 도시의 구분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전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농촌사회와 도시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장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임형백과 이성우, 2003a : 25). Durkheim(1938)과 Wirth(1938)는 나아가 도시는 주변 농촌사회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전체 사회를 ‘도시화’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이후 시카고 학파의 도시생태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되어 왔다. Park(1952:152)와 Burgess(1967) 등의 시카고 학파의 생태학자들은 자연현상에서 어떤 종이 특정한 지역에서 우세한 형태로 다른 종을 계승하는 것처럼 인간사회에서도 지역적인 토지이용의 패턴은 변화하는 환경에 기존의 사용자보다 더 적합한 새로운 경쟁자의 침입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한 침입과 계승의 과정은 인간공동체에도 반영되는데, 유용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자(상업)가 약한 경쟁자(주거)를 경쟁에서 도태시킴과 함께 지가변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계승적 침입에 뒤이은 새로운 평형상태가 이루어지고 계승과정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았다.

산업사회에서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자유시장에 반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개발하여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제3세계에서는 한계생산성이 낮은 농촌사회의 인구를 공업노동력으로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였다. Nurkse, Lewis, Fei와 Ranis의 발전모델이 모두 이러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촌사회는 값싼 저가 농산물 공급과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시의 배후지로 변모하였고, 도시에 기능이 집중되고

도시의 역할이 커지면서 도시화 과정을 통하여 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산업사회에 이르러 농촌사회의 역할과 위상은 크게 감소하였고 산업화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산업사회에서 농촌사회와 도시의 격차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성립으로 극복될 수 없었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고착되면서 사회적 생산 전반이 이에 따라 움직였다.

5. 후기산업사회⁹⁾와 농촌사회

후기산업사회에 관한 최초의 사상가는 Bell¹⁰⁾(1973)이다. 그는 1950년대 말부터 후기산업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정보의 존재와 가치의 고양을 들었다. 그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단지 정보가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와 지식이 사용된다고 보았고, 이것을 새로운 유형의 사회 즉 ‘후기산업’시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후 1980년경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래학에 대한 열의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자, ‘후기산업’이라는 용어를 ‘정보’와 ‘지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다(Webster, 2001 : 63-66). 따라서 오늘날 ‘정보사회’와 ‘후기산업사회’는 혼용되기도 하며, Toffler의 『제3의 물결』이 출간된 이후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1956년은 미국경제는 호황이었고, 일본이 UN에 가입했으며, 대륙간 전화회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화이트 칼라의 숫자가 블루칼라를 앞지른 해였다. 1957년 소련의 Sputnik 발사는 전세계적인 위성통신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의 경제·사회·정치적 조건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선진산업경제와 다르다는데 동의하고 그간 일어났던 일련의 변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들 변동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특히

9)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와 정보사회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Bell, 1976 : 467)도 있으나, 후기산업사회는 대체로 1956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사회 이후 나타난 현상이며, 정보사회는 1980년대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1990년대 초반 이후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Bell(1973)은 ‘정보사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미국에서 10여년간의 격차를 두고 나타났던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이 이후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정보사회’의 모습과 유사했을 따름이다.

10) Bell의 후기산업사회론은 사회를 독립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구분하고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어 간다고 보고 있는데, 기술결정론으로 쉽게 경도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적 현상들을 과감히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유연적 축적¹¹⁾(flexible accumulation)체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새로운 혹은 안정적인 축적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들도 만만치 않아서 포드주의 계승자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격렬한 논쟁들이 전개되었다(김용창, 2000 : 72).

서구에서 포드주의¹²⁾(Fordism)가 번성했던 시기는 대체로 2차 대전 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로서, 이 시대의 지배적인 국가형태는 케인지안(Keynesian) 복지국가였다. 여기서 국가의 주된 역할은 생산과 소비에 강력히 개입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는 소비와 노동력의 재생산에도 적극 개입하였는데, 고용 정책을 통하여 실업을 줄이면서 고용 안정을 꾀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에 대한 집합적 소비를 제공하였다. 지방정부는 전반적인 국가 역할의 증대에 발맞추어 그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서 포드주의가 이루어 놓은 성장의 과실을 균등하게 각 지역에 배분하는 단순한 행정단위로서 기능한 것이었다. 포드주의 시대의 공간구조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노동의 공간적 분업의 심화,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생산조직, 공간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11) 유연적 축적체제는 1970년대 초에 드러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연적 축적은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소비도 촉진한다. 유연적 축적은 노동과정의 변경(통합적 노동에 의한 Taylorism의 수정), 생산규모의 조절(다품종 소량생산), 시기조절(적기 생산 및 배달)을 통하여 기업, 노동, 국가의 전면적 유연화를 추구한다. 이는 포드주의가 지녔던 경직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기업의 슬림화, 노동의 약화, 국가의 기업화를 유도하고,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의 해체에 기여한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를 해체함으로써 사회적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12) 포드주의는 노무관리와 생산관리를 종합하는 종합관리의 원칙으로서 저가격과 고임금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봉사(奉仕)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물론 이는 영리주의에 대한 전면적 대립이 아닌 단기적·일시적 영리주의에 대한 부정에 지나지 않고, 봉사주의도 장기적·특질적 영리주의의 변형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고객창조주의로서 이전에는 생산에만 종사할 뿐 소비에는 참여하지 않던 생산자를 생산자와 동시에 소비자로서 위치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금자극 보다는 해외수출이 강조되었으며, 모든 작업환경의 통제와 축적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단체교섭에 의한 원만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가 유럽에서도 주된 생산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임형백, 2004 : 132).

표 3. 자본주의의 장기파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자본주의 단계	경쟁 조직(산업) 해체(고도)	
주요사건	1815산업혁명	1980레이진시대
노동과정	Manufacture	Machinofacture Fordism/Taylorism Flexibility
도시체계	mercantile expansion	분산 정보도시발전
도시형태	상업도시 거래도시 산업도시 교외화, urban sprawl postsuburban Development	

1980년대까지가 한국의 자본주의에서 포드주의가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면, 1990년대는 유연적 축적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변창흠, 2000 : 348). 이 시기의 정치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고 있다. 자본가들은 도로, 교통, 통신 등 물리적 하부시설을 도시공간에 집중시킴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의 회전을 증대시켰다(김왕배, 2000 : 415).

Harvey(1995), Lefebvre(1976) 등은 공통적으로 후기산업사회에서 도시는 자본의 축적논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농촌사회는 이러한 자본의 축적논리가 상대적으로 덜한 그러나 곧 자본의 축적논리가 강화되면서 도시화할 지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제재편을 통한 분산이나 교외화¹³⁾(suburbanization) 등에는 동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장기파동과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유연적 생산방식은 공간조직을 보완적 지역 및 도시체계로 본다(Capello와 Gillespie, 1993 : 37-44). 후기산업사회에서도 자본축적의 상황하에서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며, 도시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의 유연적 축적체제에 의하여 지리적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일방적인 도시화의 과정에서 벗어나 농촌사회가 다시 활기를 띠는 현상(rural renaissance)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촌사회가 도시와의 공존을 추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도시화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곳에서는 그 영향이 공간경제의 점진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Fried-

1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도시 주변지역의 변화과정을 Jackson(1985)처럼 교외화로 볼 것인가, Fishman(1987)처럼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에 의한 새로운 도시의 형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표 4. 미국의 도시발달의 시기와 배경

Settlement eras in the United States				
구분	Agricultural (to 1850)	Manufacturing (1850-1920)	Service (1920-1960)	Communications (1960-?)
주요자원	토지	원료	사람	정보
교통	foot/horse	water/rail	auto/air	telecommunication
취락패턴	dispersed	city	metropolis	dispersed?

*자료 : Abler, 1975 : 158

mann과 Miller(1965)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된 공간경제의 이러한 마지막 단계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도시발달의 시기와 배경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자동차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포드주의의 대량생산체제는 자동차를 일반화시켰다. 이러한 자동차의 보급으로 일반시민의 기동성이 증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은 대량소비문화를 가져왔고 주택에 대하여도 신형·개량주택에 대한 수요와 도시외곽의 쾌적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교외지역에서의 대량주택건설과 도심지역에서의 불량지구의 철거와 같은 재개발사업이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도시의 중심시가지는 인구공동화현상이 나타났고 반대로 교외지역은 도시의 신흥주거지역으로 시가지의 발전이 유도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많은 인구가 교외로 주거를 옮겨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물론 도시 전체의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집중반전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고(김인, 2003 : 52), 일부 지역에서 농촌사회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rural renaissance)이 나타나기도 하였다(Champion, 1998).

6. 정보사회와 농촌사회

정보사회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Poster(1994)도 현대의 기술 변화가 초래한 것은 정보사회의 도래인데, 현대성을 대표할 만한 근대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양상을 포섭할 정도의 사고틀을 갖추지 못했고, 결정론적인 사고 틀로는 오늘날의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포착해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사회라는 뜻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이는 Machlup(1962)으로 그는 지식산업이 주가 되는 '지식사회'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정보사회'라는 낱말은 1963년 초반 우메사오 타다오(梅棹忠夫), 고야마 겐이치(香山健一) 등 일본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아직도 정보사회는 개념이 통일된 것이 아니다. Webster(2001)가 밝힌 정보사회를 규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정보사회를 규정하는 기준

구분	내용
기술적 정의	정보통신기술상의 변화를 중요시
경제적 정의	경제적 가치의 크기를 중요시
직업적 정의	직업구조상의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
공간적 정의	통신망의 확산에 따른 시·공간의 재구성적 측면에 관심
문화적 정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와 상징의 변화를 고려

또 정보사회와 관련된 입장도 크게 정보사회의 개념을 지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입장과, 정보사회를 기존관계의 연속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정보사회에 대한 입장

구분	내용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입장	후기산업사회론(지식가치설)(D. Bell)
	포스트모더니즘 ¹⁴⁾ (J. Baudrillard; M. Poster)
	유연적 전문화 (M. Piore; C. F. Sabel; L. Hirschhorn)
정보사회를 기존관계의 연속으로 보는 입장	정보양식 ¹⁵⁾ 발달론(M. Castells)
	네오마르크스주의 (H. I. Schiller; N. Garnham; V. Mosco)
	조절이론(M. Aglietta; A. Lipietz)
	유연적 축적 (D. Harvey; K. Robins; F. Webster)
	민족국가와 폭력(A. Giddens)
	공공영역(J. Habermas; N. Garnham)

* 정보사회를 기존관계의 연속으로 보는 입장에 속한 이론가들 중에서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입장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이들은 정보의 형식과 기능은 오래된 기존의 원칙과 습관에 종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14)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적인 현상으로 고려할 경우 그 주된 특성은 사회발전 또는 인간행위의 근거에 놓여 있는 합리성을 밝히고자 하는 사상적 전통, 즉 우리가 계몽주의(enlightenmen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F. Nietzsche (1844-1900)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세계발전을 그 기본적 과정인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며, 마찬가지로 인간의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행위의 설명방식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다(Webster, 2001 : 271).

15) 정보양식이란 용어는 Marx의 생산양식론을 모방한 것이다(Poster, 1994 : 21-22).

어떤 특정지역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보화는 그 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경제개발로 심화된 지방의 중앙예속화를 탈피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한상연, 1997 : 319). Goddard(1992)는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간의 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동진(2000 : 308)도 정보사회는 자본 대 노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생산양식론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Lash와 Urry¹⁶⁾(1998)는 정보화와 자동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과정에서 기호를 산출하고 조직하는 설계과정의 물질적 노동과정에 대한 우위가 뚜렷해지고, 그리하여 생산전체에서 '성찰성'(reflexivity)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생산양식의 성격전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장소가 폐기되고 지리적으로 세워졌던 경계가 무너짐으로서 과거에 시간 때문에 생겨났던 제약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정보화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지역불균형발전의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을 가져왔다.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각국이 국가기간정보통신망 구축에 큰 비중을 두고 정보통신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체계 정비 및 확충에 주력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기술이란 다른 물질들에 효과를 미치는 물질들의 배치(configuration)이며, 인간은 기술의 합목적성에 맞춰 물질을 조작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현대 사회의 정보화¹⁷⁾(informatization)는 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정보화(정보양식)는 생산양식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화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기는 하겠지만 생산양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에 근거를 둔 '범위의 경제'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정보화가 기존의 생산양식의 재생산 또는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지 결코 기존의 생산양식을 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보화는 그 자체로서는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전환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정보화 자체는 낙관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다. 정보화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정보화의 방식이다. 정보화사회에서 농촌사회는 도시와의 지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을 거리감의 극복으로 본 것이다. 농촌사회와 도시간에 정보의 접근성(accessibility)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기업입지에서 도시와 농촌사회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거리감의 극복을 통한 도시와 농촌사회의 유기적 통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양식은 역사적 필연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생산양식이란 신흥 사회계급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흔히 군사적으로 역사적인 적들을 물리치고 사회적 연합을 건설하여, 그 헤게모니(hegemony)를 구축하기 위한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지배적이게 되는 역사적 과정들의 결과이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양식은 잉여의 전유와 배분을 결정한다. 정보사회에서 생산성의 근원은 노동과 생산수단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매개 요인인 지식의 질에 좌우된다. 지식은 보다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 그 자체에 개입한다. 또 정보주의(informationalism)는 기술적 발전, 즉 지식의 축적을 지향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산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주의 하에서 기술적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의 추구 및 축적 그 자체이다(Castells, 2001 : 26-27). 그리고 공간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또한 사회적 권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교통·통신의 공간적 배분, 그리고 물리적·사회적 하부구조 투자의 공간적 배분, 혹은 행정적·정치적·경제적 권력의 영역적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물질적인 보상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Harvey, 1994 : 274, 1996 : 238-242).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생산양식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며, 오늘날 정보기반시설은 도시에 편재되어 있고, 정보화는 농촌사회 보다는 도시공간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정보화의 진전은 공간적 접근성을 균등하게 하여 산업화과정에서 공간적 접근성의 이질적 편재로 야기된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정보기반시설의 지역간 편재는 오히려 기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더욱 확대하여 산업사회보다

16) Lash와 Urry(1998)는 포스트포드주의나 유연적 축적 등의 기존 개념이,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 지식과 정보의 근본적 역할, 생산일변도 분석에 대조되는 소비측면의 중요성, 경제영역을 관통하는 문화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찰적 축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찰성(reflexivity)은 생산주체들의 성찰적인 요소가 집약된 생산양식과 더불어 소비영역의 소비주체들의 새로운 미학적(aesthetic) 소비방식으로 구성되며, 이는 성찰의 문화적 측면과 축적의 경제적 측면이 혼합된 현상을 지칭한다.

17) Ganssmann(1990 : 10, 17)은 정보화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현대화로 보고 있다.

더욱 큰 지역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는 동전의 양면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이성우 등, 2003 : 49). 또 한국에서는 지방의 활성화, 지방의 중앙예속화 탈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왔다(한상연, 1997 : 323). 실제로 정보화는 정보기반시설의 도시편재로 인하여 도시에 배태(embeddedness)되기에 유리하며,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잉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본이 전유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는 도시에 지식을 축적하고 도시공간에서의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잉여의 전유와 분배에 있어서 도시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도시와 농촌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보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더 크게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우 등(2004)의 연구에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개인 및 지역별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정보화의 진전은 이들 간의 관계를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농촌사회는 도시와 지리적으로는 통합되고 있으나, 위상은 점점 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간과 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은 교외화를 가져와 농촌사회의 정체성의 형성마저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특히 IMF 이후 농촌사회로의 인구이동도 2,3차 산업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젊고 부유한 집단으로 구성된 유입인구나, 은퇴 후 노년을 보내기 위하여 농촌사회로 유입된 환류인구에 의한 현상이며 정보화로 인한 도시화의 역기능 해소와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유연적 축적체제와 정보화로 인한 농업의 역할 변화와 이를 통한 농촌사회의 변화는 한국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정보사회에서 농촌사회는 정보화를 통하여 지리적 제약을 극복함과 동시에 도시와 다른 농촌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내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 역할과 기능을 사회적 의미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촌사회주민이 시간과 지리적 격차가 극복된 가상공간(cyberspace)속에서 경제적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도시와의 격차를 극복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생산양식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를 간단히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또 생산양식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7. 생산양식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

생산양식	농촌사회의 변화
고대사회	도시성장의 모태·배후지 도시와 정치적·행정적으로 연결
노예사회	도시성장의 배후지 (서로마 붕괴 이후)도시와 경제적으로 연결 새로운 생산양식의 출현 없음
봉건사회	도시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 잉여농산물의 공급지 공장수공업과 농업의 점진적인 분업 농업의 상업화 새로운 생산양식(자본제적 공장수공업) 태동 산업화를 위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지 농촌사회와 도시의 분리 도시와의 대립과정속에서 도시화 진행
산업사회	산업화를 위한 저가 농산물·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지 도시의 기반이 농촌토지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면서 농촌사회의 역할과 위상 격감
후기 산업사회	도시기능의 농촌사회로의 분산 교외화 공간경제의 점진적 통합 도시와의 거리감 극복 산업업지에서 도시와의 격차 극복 도시와 농촌사회의 유기적 통합
정보사회	시간과 공간의 조직화 도시와의 정보의 균질화 도시화의 역기능 해소 도시와 농촌사회의 공존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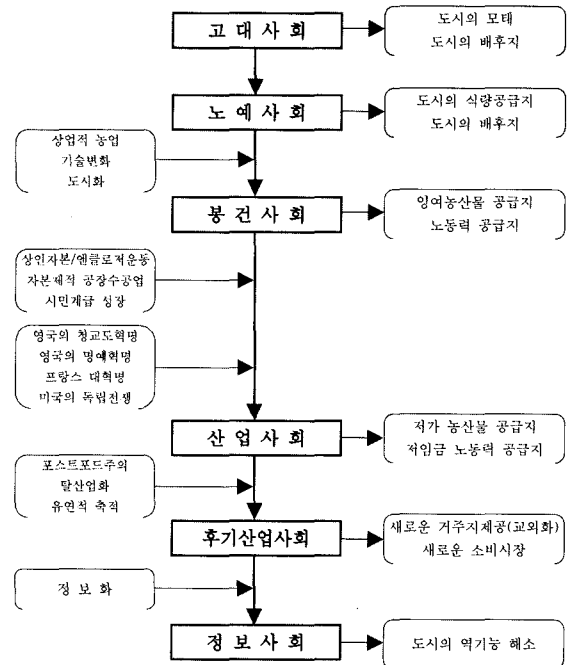


그림 1. 생산양식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산양식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고대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에서의 농촌사회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고대사회에서 농촌사회는 도시성장의 모태와 배후지로서 역할하였고, 노예사회에서는 식량공급을 통한 도시성장의 배후지로서 역할하였다. 이 시대까지 농촌사회와 도시의 연계는 정치적·행정적인 것이었고, 고대사회와 비교하여 새로운 생산양식도 출현하지 않았다. 봉건사회에 이르러 농촌사회는 도시와 경제적으로도 연결되었다. 기존도시의 상인계급이 성장하면서 자본제적 공장수공업이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태동하였다. 농촌사회의 인구가 임금에 이끌려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사회는 도시의 산업화에 필요한 잉여농산물과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점차 공장수공업과 농업사이의 점진적 분업이 이루어졌으며 농촌사회와 도시의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에 기반을 둔 봉건적 장원제도와 상인계급의 자본제적 공장수공업의 대립이 나타났다. 결국 이 모순이 봉건제도를 붕괴시켰고, 농촌사회와 도시의 대립구도 속에서 농촌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산업사회에 이르러서 농촌사회는 저가 농산물과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지로서 역할하였다. 고대사회에서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농촌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도시의 존속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도시 혹은 산업화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도시만큼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하고 특히 미국에서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사회의 역할은 재조명되었다. 교외화를 통하여 농촌사회는 안락한 새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다.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농촌사회와 도시간의 산업입지에서의 격차가 극복됨으로서 도시기능이 농촌사회로 분산되고 공간경제가 점진적으로 통합됨으로서 농촌사회와 도시의 유기적 통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정보사회에 이르러서는 농촌사회와 도시의 정보의 균질화, 시간과 공간의 압축화·조직화를 통하여 농촌사회가 도시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농촌사회와 도시의 균형적 국토발전이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은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에 기초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사회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농촌사회의 역할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정보접근도의 차이로 인하여 격차를 오히려 더 크게 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보다 많

은 지식이 축적되고 보다 생산성이 높은 도시가 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잉여의 전유와 배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사회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즉 정보화의 방식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서 예측된 농촌사회의 역할을 위해서는 명분론적 정보화 보다는 정보화가 가져오는 농촌사회의 공간변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이를 실질적인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중앙부처에 의해 주도된 지역정보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내 농촌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촌사회의 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농촌사회는 정보화를 통하여 지리적 제약을 극복함과 동시에 도시와 다른 농촌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내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 역할과 기능을 사회적 의미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촌사회주민이 시간과 지리적 격차가 극복된 가상공간(cyberspace)속에서 경제적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도시와의 격차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BS1019)

참고문헌

1. 김왕배, 2000, 도시의 자본순환과 건조환경이론,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의 정치경제학 : 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415-426
2. 권용우 등, 2002, 도시의 이해, 박영사
3. 김용창, 2000, 공간정치경제학의 분화와 재구성,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의 정치경제학: 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71-87
4. 김인, 2003,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5. 김주찬, 민병익, 20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7(1) : 75-95
6. 래쉬, 스콧(Lash, S), 어리, 존(Urry, J),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학사
7. 류승호, 1996, 지역정보화 정책과 지역정보의 위상, 한국사회학 30(1) : 731-758
8. 박동진, 2000, M. 포스터의 생산양식에서 정보양식

- 으로의 전환 비판, 정치비평 7 : 306-332
9. 반 바트, 베르나르트 슬리허(van Bath, B. S), 1999, 서유럽 농업사 500-1850년, 까치
 10. 베버, 막스(Weber, M), 1998,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계명대학교 출판부
 11. 벨, 다니엘(Bell, D), 2002,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구조, 한울
 12. 변창흠, 2000,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산업의 발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의 정치경제학: 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329-352
 13. 소자, 에드워드(Soja, E),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4. 손더스, 피터(Saunders, P), 1998,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아카데미
 15. 웹스터, 프랭크(Webster, F), 2001, 정보사회이론, 나남출판
 16. 이성우, 임형백, 조종구, 2004, 농가 정보화의 결정 요인과 지역간 차이, 농업경제연구 45(1) : 47-81
 17. 임창호, 1998, 정보기술의 발달과 도시에의 영향: 계획 패러다임의 위기와 도시의 미래, 국토계획 33(6) : 7-31
 18. 임형백, 2004, 농촌연구에 대한 농업경제학적 접근과 농촌사회학적 접근의 비교와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1) : 127-144
 19. 임형백, 이성우, 2003a,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농촌계획 9(4) : 19-34
 20. 임형백, 이성우, 2003b,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근대화론 비판, 농촌사회 13(2) : 41-73
 21.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2. 카스텔, 마누엘(Castells, M),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23. 카스텔, 마누엘(Castells, M),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4. 토플러, 엘빈(Toffler, A), 1992, 제3의 물결, 범우사
 25. 포스터, 마크(Poster, M), 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26. 푸코, 미셸(Foucault, M), 1986, 말과 사물, 민음사
 27. 피시만, 로버트(Fishman, R), 2000, 부르주아 유토피아: 교외의 사회사, 한울
 28. 하비, 데이비드(Harvey, D),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29. 하비, 데이비드(Harvey, D), 1995,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30. 하비, 데이비드(Harvey, D),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31. 한상연, 1997, 지역정보론, 전석호 등, 정보정책론, 나남출판 : 319-345
 32. Alavi, H., 1975, India and the colonial mode of production, in R. Miliband and J. Savile (eds.), The Socialist Register, London: Merlin : 160-197
 33. Alber, R., 1975, Settlement Geography and Telecommunications: The next twenty years, in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 Business and Society in Change : 155-180
 34. Amin, S., 1976,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ulation of Peripheral Capitalism, Hassocks: Harvest
 35. Bell, D., 1981, The Social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 Forester (ed.), The Microelectronics Revolution, Massachusetts: The MIT Press
 36.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Harmondsworth: Penguin, Peregrine Books
 37. Burgess, E., 1967, The growth of the city: and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in R. Park and E. Burgess, The City,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8. Capello, R. and A. Gillespie, 1993,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spatial organization: Future trends and conceptual frameworks, in G. Giannopoulos and A. Gillespie (ed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Innovation in Europe, London: Belhaven Press : 24-56
 39. Champion, T., 1998, Studying Counterurbanisation and the Rural Population Turnaround, in P. Boyle and K. Halfacree (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theories and issues, Mannion, A.M./ Chichester: John Wiley & Sons
 40. Childe, V. G., 1950, The urban revolution, Town Planning Review, 21 : 3-17
 41. Dos Santos, T.,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60(2) : 231-236
 42. Durkheim, É., 1938,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Free Press
 43. Durkheim, É., 1933,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oronto: Macmillan
 44. Emmanuel, A., 1982, Appropriate or Underdeveloped Technology, Chichester: John Wiley
 45. Engels, F., 1969, The housing question, in K. Marx and F. Engels, Selected Works, vol. 2, Moscow:

- Progress Publishers
46. Fishman, R., 1987, *Bourgeois Utopias: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New York: Basic Books
 47. Friedmann, J. and J. Miller, 1965, *The Urban Field*,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1(4) : 312-320
 48. Ganssmann, H., 1990, *Ein Versuch über Arbeit*, Unpublished mimeo, Institut für Soziologie, Freie Universität Berlin
 49. Goddard, J. B., 1992, *New Technology and the Geography of the UK Information Economy*, in K. Robins (1992), ch. 11: 178-201, First published in 1991 as "Networks of Transactions,"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22 February: vi
 50.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asil Blackwell
 51.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ward Arnold
 52. Jackson, K. T., 1985, *Crabgrass Frontier: The Suburb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3. Kahn, J. S. and D. H. Smith, 1981, *Towards a new Marxism or a new anthropology*, in J. S. Kahn and J. R. Llobera (eds.), *The Anthropology of Precapitalist Societies*, London: Macmillan : 264-324
 54. Laclau, E., 1979,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Verso
 55. Lefebvre, H., 1976, *The Survival of Capital*, London: Allison and Busby
 56. Lefebvre, H., 1972, *La pensée marxiste et la ville*, Paris: Castermann
 57. Machlup, F., 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58. Marx, K., 1983, *Capital*, vol. 1. (11th ed.), London: Lawrence & Wishart
 59. Marx, K., 1981,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60. Marx, K., 1976, *Capital*, vol. 1, Harmondsworth: Penguin
 61. Marx, K., 1964,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62. Marx, K. and F. Engels, 1970,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 Wishart
 63. Park, R., 1952, *Human Communities*, New York: Free Press
 64. Poulantzas, N., 1978,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Verso
 65. Schiller, H. I., 1983, *The World Crisis and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18(1) : 86-90
 66.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 Weber, M., 1958, *The Cities*, Chicago: Free Press
 68. Wheatley, P., 1971, *The Pivot of the Four Quar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9.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 1-24